보해양조 노사, 지역발전 위해 협력 나서

100만원씩 모아 장학금 200만원 전달

보해양조 이세윤(맨 왼쪽) 생산본부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운데) 황보욱(오른쪽) 노조위원장이 장학금 전달식.

보해양조 노사가 장성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보해양조는 11일 오전 장성군청에서 지역인재 장학금 200만 원을 장성군장학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이세윤 생산본부장, 황보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지역인재들의 학습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장성 생산본부는 2018년 상반기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장학금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보해양조 노조는 노조발전기금을 활용해 장성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함께 기탁하기로 했다.

황보욱 보해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장성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노조도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울수록 미래 희망인 지역 청년들을 키우는데 보해양조 노조는 힘을 합칠 것이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인재 육성에 힘쓰는 것과 함께 장성지역의 축제 알리는 데에도 장성군과 협력하고 있다.

보해는 지난 10일부터 장성지역 대표 축제인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백양단풍축제를 알리는 한정판 잎새주 5만 병을 생산했다.

한정판 잎새주는 장성을 상징하는 문구인 '옐로우 시티 장성'이란 글씨와 함께 황룡강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담겼다. 이번에 생산된 잎새주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기간인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행사장 일원 업소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보해양조 이세윤 생산본부장은 "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장성에 생산본부가 있는 지역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인재 장학금과 한정판 제품이 장성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

버스·택시비에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 줄인상에 가계 부담

4~5년만의 전국 대중교통 요금 인상
수도세·통행료 등 부담 가중 불가피

전국의 버스와 택시, 수도료,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예고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4~5년 만에 단행된 것이어서 이를 감내해야 할 서민 가계의 충격은 적지 않다.

◆서민 가계 '주름살'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폭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8.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3000원에서 3250~3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을 최대 4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다.

다만,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지자체들은 요금은 올리더라도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택시회사가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 끝나면 시·도의회 보고·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택시요금이 오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

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다. 1t당 470원이다.

가정에서 20t을 사용하면 기존 8600원에서 800원이 오른 94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광명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지만 서민 가계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됐다. 경차는 50원이 올랐다.

특히 서수원~의왕 간 민자 도로 이용 차량이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에 달해 이 구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다.

한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삶이 팍팍했는데 주 52시간 시행 이후 지갑은 더욱 얇아졌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올라 살림살이 더 힘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김승열 기자·광주시=오종일 기자·김현정 기자

kimsy@metroseoul.co.kr

/담양군

담양군,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 박차

2022년에 우수 1계통 출원 계획

담양군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의 품질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2016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지역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수확철을 맞아 지난 10일 벼 육종포에서 1차 선발을 완료하고, 선발한 우량계통들의 수량성 및 미질 조사, 밥맛 평가를 실시해 품종을 최종선발, 내년부터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가장 우수한 1계통을 2022년 품종으로 출원할 계획이다.

장풍환 군 농업기술센터장은 "담양만의 맞춤형 품종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명품상표 구축은 물론 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광주시 '공유정책' 생활 속 나눔으로 자리잡아

공간·물품·자원 등 시민들에 개방
이용 편의 위해 공유센터 구축 지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 정책이 공공과 민관 보유자원을 함께 나누는 생활 속 공유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공유도시 광주'를 목표로 지난 2013년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 공유서비스는 광주시, 자치구,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차장 107곳, 회의실·강당·공연장 240곳, 체육시설 419곳, 화장실 1304곳 등의 공유공간과 자전거 대여소 62곳, 장난감 도서관 8곳의 공유물품 대여 등 9개 분야 2214개의 공유자원을 발굴해 시민에게 개방·운영 중이다.

지난 3월부터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 공용차량 23대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이를 이용해 가족여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또한, 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2015년부터 시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아리바다'는 현재까지 교양, 인문, 재능나눔 등 동영상 287편의 강좌를 제공해 이용자가 최근 28만 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혁신도시 내 주요 공공기관들과 지식공유 협약을 추진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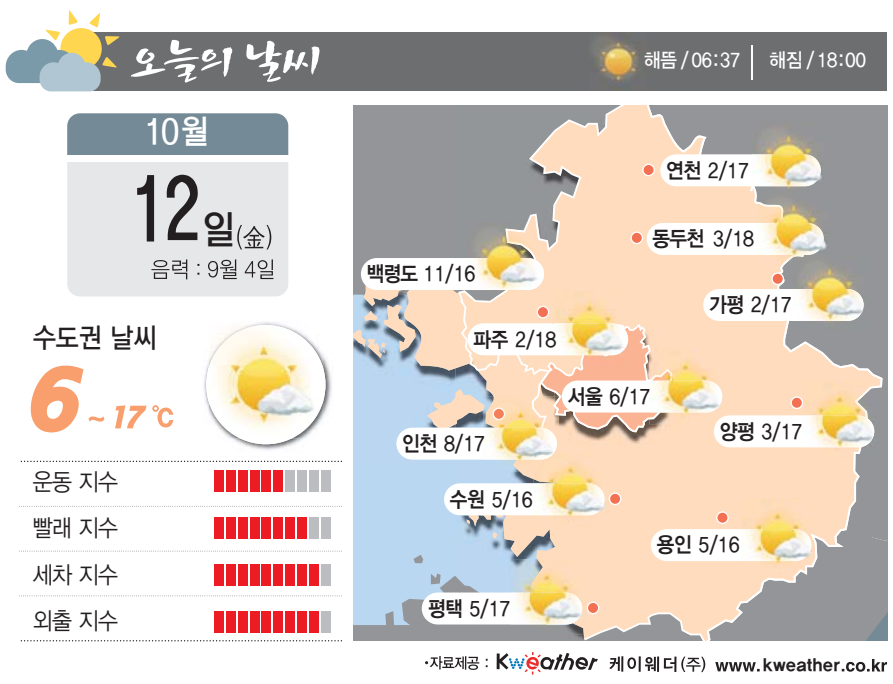
광주형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난해에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남구 진월동에 '광주공유센터'를 개소하고, 생활용품·유아물품·캠핑용품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한 공유물품을 대여하고 다양한 재능·경험을 체험·교육하는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내년에는 시민들의 공유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구, 서구, 북구에 '자치구 물품공유센터 구축'을 지원해 시민 호응도가 높은 공유물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와 민간 공유자원의 검색, 사진, 위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광주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 올해 9월 현재 누적이용자만 3만7673명으로 하루 평균 13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실시간 예약 결제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철승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의 공유활동은 이웃간 단절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핵심가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가 광주시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광주시, 美 퀄컴연구소와 맞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최종 선정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가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퀄컴연구소와 손을 잡고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 미국 퀄컴연구소, 린정보시스템, 조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공기품질 실시간 감시·예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퀄컴연구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분석,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 IOT 등 4차산업 및 ICT분야 선진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다른 국가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산업의 전략기술과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산·학·연과 해외 R&D파트너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5억원, 민자 5억)을 투입해 ▲IoT센서 통합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및 제작 ▲공기품질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기간 추이 예측 및 시각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발 시제품 및 분석 플랫폼의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파일럿 사이트 구축 및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미국 퀄컴연구소와 11월1일 스마트시티 공동연구 개발 촉진 및 퀄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광주시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외연구기관의 IoT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은 아시아 및 중동 등 새로운 해외 수출판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